

성서 기본 지식

D.HEASTER 著
盧 賢 基 譯

基督教 教理 學習
教科書

학습 3

하나님의 약속

韓國 聖書 研究院 發行

www.korbible.net

학습 3: 하나님의 약속

3.1 하나님의 약속: 서론

3.2 에덴에서의 약속

3.3 노아와의 약속

3.4 아브라함과의 약속

3.5 다윗과의 약속

변론 9: 하늘과 땅의 멸망

변론 10: British Israelism 주장

3.1 하나님의 약속: 서론

이제까지의 학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어떻게 역사하시는 지를 광범위하게 살펴보았다. 그렇게 하므로 그것들에 대한 일반의 그릇된 해석을 일소하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므로 사람들이 얻게 될(요.14:15),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약.1:12; 2:5).

구약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다. 바울이 심문대에서, 그가 세상 모든 것을 잃어 버리면서 받을 장래의 보상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심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립바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행.26:6-7). 바울은 그의 생애 대부분을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므로(행.13:32-33), 그 약속의 일부가 성취된 것이었다. 바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과(행.24:25; 28:20,31), 심판자로 오실 주의 재림과(딤후.4:1),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수립될 것을 것을 믿으라고 하였다(행.24:25; 28:20,31).

이 모든 것은 구약성서가 영생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신화와 같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라고 말하는 주장을 가라앉힐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2000년 전에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태초부터 그와 함께 있었던 계획이었던 것이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영생에 관한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딤후.1:2-3)고 바울은 그의 전도 주제를 선언하였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것이니라”(요일.1:2).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 태초부터 그와 함께 있었던 목적인 것을 생각해보면, 구약성서에 기록된바, 4000년 동안이나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 오면서 그것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였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사실 구약성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예비한 이 소망을 예언들로 더욱 상세하게 말하고, 약속으로 밝히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까닭에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하

2 하나님의 약속

신 하나님의 약속을 인식하는 것이 구원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다”(엡.2:12)고 하며, 그 약속들을 상기하라고 하였다. 물론 그들의 이교 신앙이 하나님에 관한 약간의 소망과 지식을 그들에게 주었었을 것이지만, 구약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알지 못했으므로, 실제로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 소망을 정의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행.26:6).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교회들이 반드시 강조해야 할 구약성서의 이 부분들을 등한히 하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사실이다. 현대의 “그리스도교는” 구약성서를 인용한다 해도 그것의 몇구절 뿐이며, 신약성서를 위주로 신앙하는 종교로 퇴화하고 말았다. 예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신앙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모세(모세가 기록한 그의 五經)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눅.16:31).

육신의 생각으로는 예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할 것이다”(눅.16:30과 비교). 그러나 예수께서 구약성서에 관한 온전한 지식이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처형된 후에 그 제자들의 믿음이 좌절하였던 것은 그들이 구약성서에 관한 바른 지식이 없는 탓이라고 예수께서 추궁하셨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서에 쓴바, 자기에(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24:25-27).

예수께서 구약성서 전체가 자기에 관한 말씀이라고 강조하신 것에 주목하라. 제자들이 구약성서의 말씀들을 읽어본 적이 없다든가 또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적절하게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그것들을 바르게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가는 것보다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믿음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 유대인들은 구약성서 읽기에 열광적이었다(행.15:21 참고).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 관한 것들과 그의 복음에 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그것들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약속 3

“모세를 믿었더라면,또 나를 믿었으리니,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요.5:46-47).

그들이 구원을 확신하는줄 생각하고 성서를 그렇게 열심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예수에 관한 메시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너희가 성서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서를 상고하거니와,이 성서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5:39).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구약성서의 사건들과 가르침에 관한 지식은 상당히 가지고 있었지만,그것들은 그들이 우연히 알게 된 지식들이었다.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은 터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 학습의 목적은 구약성서의 주된 약속들의 실제 의미를 확증하여 당신을 그런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 에덴 동산에서의 약속
- 노아와의 약속
- 아브라함과의 약속
- 다윗과의 약속

이 지식은 모세가 기록한 그의 오경(五經)과 구약성서의 선지자들의 글에서 얻을 수 있다.그리스도교 복음의 모든 요소는 거기서 찾을 수 있다.바울은 이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같이 설명하였다.“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행.26:20-23).그의 생애 끝날까지 부른 노래가 역시 그것이었다.“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행.28:23).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소망은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바,그것은 그의 생애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기까지 그에게 영광스러운 빛이었다.모든 그리스도교 신자가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이다.우리도 그를 본받을 수 있도록,“성서를 상고하여 그 소망을 확고히 하도록” 하자.

4 하나님의 약속

3.2 에덴에서의 약속

인간의 타락에 관한 슬픈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인용하여 하와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유인하여 저주를 받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불순종하여 형벌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실 그암흑 때에도 소망의 빛은 비취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3:15).

우리는 이 구절에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아주 의미있는 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 “후손”은 자녀를 의미하지만, 또한 그 특별한 “후손”과 연합돼 있는 사람을 말하기도 한다. 우리는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인 것을 알게 될 것이지만(갈.3:16),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으면” 그 후손이 되는 것이다(갈.3:27-29). 이 “후손”이라는 말은 또한 정액(精液)이라는 뜻도 된다(벧전.1:23). 그러므로 참된 후손은 그의 조상의 성품을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 뱀의 후손은 그 뱀과 같은 성품을 가진 종족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즉,

-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
- 거짓말 하는 자.
- 다른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는 자.

우리는 학습 6에서 문자 그대로의 사람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요소가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그것들은:-

- “우리의 육신적 옛 사람”(롬.6:6)
- “육신의 사람”(고전.2:14)
-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엡.4:22)
- “그 옛사람과 그 행위”(골.3:9).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사람”은 성서에서 “마귀(魔鬼)”라고 하고, 그 뱀의 후손이라고 하였다.

그 여자의 후손은 특별한 사람이었다. -“너(뱀의 후손)는 그의(여자의 후손의)

하나님의 약속 5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창.3:15).이 사람은 뱀의 후손,즉 죄를 영원히 멸할 것이었다.“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그에게 치명적인 것이다.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여자의 후손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주 예수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죄의 세력,- 롬.6:23)을 없이하시고,“복음으로써 생명과 죽지 아니하는 것(영생)을 드러 내신지라”(딤후.1:10).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다”. 즉 성서의 마귀,그 뱀의 후손을 멸하신 것이다(롬.8:3).

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to take away our sins) 나타나 신바 된 것이라”(요일.3:5).

“이름을 예수(구주라는 뜻)라 하라.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마.1:21).

예수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지만,실제로는 마리아의 아들로,“여인에게서 태어나셨다”(갈.4:4).이런 의미에서,그는 보통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세상에 태어났지만,역시 여자의 후손이었다.“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창.3:15).여자의 그 후손은 죄,곧 뱀의 후손에 의해서 잠시 상함을 받게 되어 있었다.그 뱀은 사람의 발꿈치를 물어 잠시 동안 상하게 한 반면에 그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므로 그 뱀을 완전히 멸한 것이다.

그 뱀의 후손의 죄를 정죄하기 위하여 첫째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여야 했다.그 구절이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할 때에 인용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라.예수께서 일시적으로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은 그의 사흘 동안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그의 부활은 그가 죄에게 준 치명적 상처에 비해 그 죽음은 일시적 상처인 것을 입증하고 있다.성서의 기록은 아니지만,그 십자가의 처형에서 그 집행자들이 그들의 발꿈치로 죄수들을 형틀에 못박았다고 한 것은 아주 관심을 끌게 하는 사실이다.이처럼 예수의 죽음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뿐이었다.그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사.53:4-5)는 말로 묘사하고 있다.이것은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에게 상함을 받게 될 그 예언을 단순하게 인용한 것이다(창.3:15 참고).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봉착했던 그 죄악을 통하여 역사하여 그의 뜻을 이루었던 것이다.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상하게 한 악의 세력의 관할을 통하여,“그를 상하게 하셨다”고(사.53:10)기록되었다.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시 그의 자녀들 각자를 그 악의 경험을 통해 역사하여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6 하나님의 약속

오늘날의 갈등

그러나 이런 의문이 당신의 마음에 떠오를 것이다. “예수께서 죄와 죽음을 멸하였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 대답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께서 그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멸하셨다는 것이다. 에덴 동산의 그 예언은 예수와 죄 사이의 갈등을 말한 것이다(창.3:15). 이제 이것은 그가 그의 승리를 함께하자고 우리를 초청한 까닭에, 결과적으로 우리 역시 죄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승리에 동참을 초청 받지 아니한 자들, 또는 그 제의를 거절한 자들은 물론 죄와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비록 참된 신자들도 죄와 죽음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갈.3:27-29) 여자의 후손과의 연합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결국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구원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음을 없이 한 것에서” 전망해 볼 때에(딤후.1:10)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천년왕국 끝에 완성되기까지, 죽음이 절대로 세상에서 다시 목격할 수 없을 때까지, 사람들의 죽음이 실제로 없어질 때까지, 그 죽음은 세상에 있을 것이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전.15:25-26).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신 예수에 대한 그 약속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다(창.3:15). 그것들은 성서의 일부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우리에게 직접 하신 예언이며 약속인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역시 잠시 동안 죄의 승리가 가져올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재림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와 마찬가지로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여자의 후손이라면, 그 “상처는” 잠시 동안일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 물에서 올라옴으로 상징하는바, 그들 자신이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이 되는 것이다(롬.6:3-5을 보라).

우리가 참으로 여자의 후손이라면, 우리의 생활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반영하는바, 우리 안에 선과 악의 대립과 갈등이 계속될 것이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서 사납게 휘몰아치고 있는 그 자신과 죄의 투쟁을 광적(狂的)인 상태로 묘사하고 있다(롬.7:14-25).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후, 우리 안에서는 죄와의 갈등이 증가하고, 그것은 일생 동안 계속되는 것이다. 이 갈등은 죄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어려워져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이미 싸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렇지도 아니한 것이다.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면서 역시 그의 가장 사랑 받는 아내들이 된 것이다(엡.5:23-32까지에서 신자들이 여인들로서 묘사돼 있는 것에 주목하라).

하나님의 약속 7

여자의 후손은 예수를 본받아 그의 성품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이, 뱀의 후손은 죄(성서적 “마귀”)와 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며 그릇되게 말한다. 결국 그것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이, 죄의 수치로 인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만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예수를 죽음에 넘겨준 백성이었다, 즉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뱀의 후손의 으뜸되는 실례가 되었다. 이것은 침례자 요한이 예수에 관하여 말한 것에서 확증된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마.3:7).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마.12:25,34).

세상의 종교계도, 이와 동일하게 뱀의 특성(Nature)을 가지고 있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만 여자의 후손인 것이다. 기타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뱀의 후손인 것이다. 예수께서 뱀의 후손이었던 그 백성을 다루신 것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그는 사랑과 진리의 영으로서 그들에게 전도하였다.
- 그들의 방법과 생각이 그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였다.
- 자기 자신의 생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

그런 까닭에 모두가 그를 미워하였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의 노력을 그들은 질투하였다. 그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그와 담을 쌓고 그를 떠나갔다(요.7:5; 막.3:21; 요.6:66)). 바울은 그에게 시종여일하게 대항하는 자들에게서 그와 똑같은 것을 경험하였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眞理)를 말하므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갈.4:14-16).

오늘날도 진리는 대중에게 인기가 없는 법이다. 그것을 알고 그대로 사는 것은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 되며, 때로는 핍박을 받을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때에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자(- 하나님 의 말씀의 바른 지식으로 난 자- 뱀전.1:23)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갈.4:29).

8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면, 그가 당한 고난을 경험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므로 우리는 그의 영광의 보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다시 그것에 비할 수 없는 실례를 세워놓았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一向)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딤후.2:10-12).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라”(요.15:20-21).

- 즉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와 연합하여 그를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행.2:38; 8:16).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에, 이론을 제기하게 된다. “만일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와 연합한 것이면, 도리어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물론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아니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오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영광스러운 보상으로 결과 지을 것으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기 위한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금도 그의 희생은 우리 생활에서 받게 되는 상처들에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영광스러운 확신의 구절들을 첨가하겠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10:13).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롬.8:31).

3.3 노아와의 약속

아담과 하와의 시대 후에 인간 역사가 진보하였지만, 인간에게는 죄악이 증가하였다. “야웨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창.6:5-8).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도를 파괴하시기로 결정하리 만큼 인류 문화는 도덕적으로 타락에 이르렀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동안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의 대표들이 살아 남을 수 있는 방주를 만들라는 분부를 받게 되었다. 홍수에 관해서는 성서의 분명한 기록을 떠나서, 이 거대한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는 많은 과학적 근거가 산재해 있다. 땅을 멸한다고 해서 지구(地球)를 멸한 것이 아니고, 땅위에 악한 인간이 세운 사회 제도 문화를 멸망시킨 것에 주목하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창.7:21). 예수와 베드로는 노아시대에 있었던 세상에 대한 심판이(마.24:37; 벰후.3:6-7),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늘날에도 노아의 때의 죄악과 필적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처벌될 것이다.

인간의 총체적 죄악과 이 행성(行星)의 자체적 멸망에 착수한 까닭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신앙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이 생각은 분명히 성서의 기본 메시지, 곧 하나님께서 이 행성의 사건들에 대하여 관심이 깊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하기 위하여 곧 재림하신다는 지식조차도 완전히 결핍돼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행성이 파괴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의 약속들은 지켜질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는 충분한 증거를 학습 4.7과 학습 5에서 얻을 것이다. 하여간 다음 구절들은 땅과 태양계의 제도가 파괴되지 아니할 것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 “그 땅은(earth)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셨느니라”(시.78:69).
-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for ever) 있다”(전.1:4).
-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廢)치 못할 명(命)을 정하셨도다”(시.148:3-6).
-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야웨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11:9).

10 하나님의 약속

- 만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멸하게 내버려두신다면, “야웨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그의 약속은(민.14:21)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 “야웨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창조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사.45:18). 만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려고 창조하셨다면, 그의 사역은 헛되이 끝날 것이 아닌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노아에게 약속하셨다. 그 홍수 후에 노아가 새 세상에서 다시 살기 시작할 때에 노아가 또 다른 멸망이 있지 않겠는가 두려워 하였다. 홍수 후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이 생각이 그의 마음에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그에게 언약하셨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하나님께서 죽을 수 밖에 없는 모든 인간과 약속하셨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沈沒)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창. 9:9-11).

이 언약은 아름답게 나타날 무지개로서 확증하였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창.9:13-17).

그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사람과 동물 사이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 땅은 사람과 동물이 영원히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아와의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 나라에 관한 복음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이 행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의 영원한 목적이 있음을 확증하고 있다. 그의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기억하시며(합.3:2), 그가 창조하신 동물까지도 보살피시는 것이 그의 사랑인 것이다(고전.9:9; 욥.4:11과 비교하라).

3.4 아브라함과의 약속

예수와 그의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은 아브라함이 인식하고 있었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없었다. 성서는 “하나님은 여러 족속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義)로 여기시게 될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갈.3:8)고 말씀하였다. 베드로의 복음 선언은 그 약속들을 인용하여 시작하고 끝냈을 정도로(행.3:13-25), 그것들은 중요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가르쳤던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교의 복음에 관한 기초 지식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복음”은 바로 예주시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증거가 있다:-

-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행.13:32-33).
-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즉 아브라함, -창.20:7)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롬.1:1-2).
-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벧전.4:6) - 즉 1세기 이전에 살다 죽은 신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 “저희(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히.4:2).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에는 두가지 주제가 있다:

- (1) 아브라함의 씨(seed)에 관한 것들 - 특별한 후손과.
- (2)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관한 것들이다.

이 약속들을 신약성서에서 해설하고 있다. 우리는 성서 그 자체가 설명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도록 두성서의 가르침을 연합해야 할 것이다.

본래 아브라함은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있던 번창하였던 도시 우르(Ur)에 살고 있었다. 현대 고고학자들의 작업으로 그 도시가 아브라함의 때에 이미 고급 문화 수준에 도달하고 있던 국가였던 것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은행제도가 있었으며, 도시의 기간 시설들이 갖추어졌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아브라함

12 하나님의 약속

이 바로 이 도시에 살았으며, 세상적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세파에 얽고 얽은 그 생활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 사는 장소와 하던 일을 완전히 정리하라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가나안 땅- 현 이스라엘을 향해 1500 마일의 여행을 떠나라는 것이었다.

그의 생애 동안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 약속들을 반복하여 말씀하셨다. 그 약속들은 그리스도교 복음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에게 하였던 것과 같은 부르심이 있어, 이 세상 허무한 것들에서 떠나, 믿음의 생활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값진 것으로 생각하며, 그의 말씀에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긴 여정에서 그 약속에 대하여 숙고했으리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하였다(히.11:8).

우리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약속된 땅이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믿음은 그와 같이 열심히 순종해야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유목민 생활 보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 더 좋은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근본적으로 가졌던 조건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와 유사한 점이 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에 따라 행동할까 말까 하는 생각에 당면하는 것과 같이 그도 그것에 당면하여 결심하기에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그의 기나긴 신앙여정을 통해 그 동기가 되었던 것은 유일한 그 약속의 말씀이었다. 그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들이 그에게 참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날마다 묵상했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우리도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베틀이라고 불리우게 되고(사.41:8),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며(창.18:17), 그 나라에 있을 영원한 생명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는 바, 그와 동일한 영예를 받게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 위에 세워진 것을 강조한다.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를 믿는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읽고 또 읽어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 땅 (The Land)

- 1)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12:1). 이 땅은 주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던 그 영토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13

- 2) “아브라함이...벧엘(중앙 이스라엘)에 이르매...야웨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從)과 횡(橫)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창.13:3,14-17).
- 3) “야웨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창.15:18).
- 4)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고”(창.17:8).
- 5)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롬.4:13).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는 점진적으로 진전돼 나간 것을 알 수 있다:-

- 1) ‘내가 네게 주고자 하는 땅이 있다’.
- 2) ‘네가 지금 그 땅에 이르렀다. 너와 네 자손이 여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영생의 약속은 어떤 매력적 강조 없이 기록돼 있다. 그것은 인간의 저자와 같이 어떤 과장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 3) 약속하신 땅의 영역(地域)을 더욱 상세하게 일러주었다.
- 4)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生涯)에 그 약속한 것을 받으리라고 기대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었지만, 그는 그 곳에서 “외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이것은 그가 죽은 후, 그 약속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 5) 바울은 영감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그가 온 세상의 후사가 된다 의미인 것을 알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에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이런 방법으로 깨닫게하고 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히.11:9).

그는 그 땅에서 보통 피난민들이 생활하는 것과 같이 안정성 없이 그곳 사람들

14 하나님의 약속

과 어울리지 않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는 그의 자손들과 땅을 소유하고 살 수가 없었다. 그는 그의 자손들, 이삭 야곱과 함께 살다가,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히.11:13). 그 네 단계의 신앙생활을 주목하라:-

- 그 약속들을 바로 알 수 있게 - 이 학습에서 공부하자.
- “그 약속들을 확신하였다”. -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약속들을 확신해야 할 것이다.
-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침례를 받음으로 - 그 약속을 마음에 받아들여야(Embracing) 한다(갈.3:27-29).
-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세상에서 살아 가야 하며, 그런 생활 태도를 세상에 입증하며, - 이 땅에 임할 오는 세상을(the World to come)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한다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위대한 영웅으로서 우리의 최선의 본보기라고 생각된다. 그 약속이 장래에 성취될 것이라는 그의 확신은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그를 시험하였다. 그는 그녀를 매장하기 위하여 실제로 그 약속의 땅 일부를 구입하였던 것이다(행.7:16). 그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행.7:5), 그는 한치의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하였다. 현재의 아브라함의 후손도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이 세상에서 그 약속에 어울리지 않게 땅을 사든가 빌리든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상으로 받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히브리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히.11:13):-

-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신자들 모두가 마지막 날 심판할 때에(딤후.4:1,8; 마.25:31-34; 벰전.5:4), 동시에 보상 받게될 것이다. 그 심판이 시행되려면, 그 약속을 알고 믿었던 아브라함과 기타 모든 신자들이 부활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지금 그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고 그리스도 재림 시에 부활하여 심판을 받은 후에 받게 되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 15

만, 유럽의 성당들에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생활에 대한 그 약속의 보상을 이미 받고 그것을 누리며 하늘에 있는 것으로 묘사된 모자이크 글라스 창으로 단장돼 있다. 수백년 전에 수천의 사람들이 그런 그림에 삽입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 당신은 성서의 지식으로서 그런 미몽(迷夢)에서 깨어날 수 있는가?

그 후손 (The Seed)

학습 3: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 그 후손에 관한 약속은 첫째로 예수에게 해당 되는 것이며, 둘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김받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 1) “내가 너로 큰 족속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12:2-3).
- 2)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창.13:16, 15).
- 3)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창.15:5, 18).
- 4)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하리라”(창.17:8).
- 5) “내가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창.22:17-18).

그 후손에 관한 아브라함의 지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발전하였다:-

- 1) 첫째로 그 후손이 그의 족속 중에서 특별한 사람일 것과, “그를 통하여 온 땅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
- 2) 나중에 아브라함은 그 후손으로부터 많은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르게 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 3)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들 같이 많아질 것을 알게 되었

16 하나님의 약속

다. 이것은 그에게 “많은 영적 후손”과 “많은 육적 후손이” 있을 것을 제시한 것이다.

4) 그 후손의 일부가 될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추가적 확인으로 그 이전 약속들이 뒷받침 된 것이다.

5) 그 후손은 결국 그의 원수에게 승리할 것이다.

그 후손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에 주목하라. 성서에서 축복이라는 것은 자주자주 죄사함과 관련되어 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것이(시.32:1) 그 축복이다. “그 축복의 잔은”(고전.10:16)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묘사하고 있다.

물론 세상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인 예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에 대하여 새로운 언약으로 굳게 뒷받침하신 분이다:-

“여럿을 가리켜 그 후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후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갈.3:16).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후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행.3:25,26).

여기서 베드로가 창.22:17-18을 인용하여 해설한 것에 주목하라:-

그 후손 = 예수

그 축복 = 속죄

그 후손인 예수가 그의 원수에게 승리하리라는 그 약속의 근원을 추적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최대 원수이며, 또한 예수의 최대 원수인 죄를 멸하는 것이었다.

그 후손과의 연합

그리스도교 복음의 기본 지식을 터득하려면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것임이 명백해졌을 것이다. 이 중요한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예수에게 하신 것이었다.

하나님의 약속 17

그 외에 어느 누구에게 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육신적 후손이라도 자동적으로 그 특별한 후손(요.8:39; 롬.9:7)의 일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우리는 예수님의 일부로 그와 연합하게 되었으므로,그 후손에게 하신 그 약속을 나누게 된 것이다.이것은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으므로 되는 것이다(롬.6:3-5).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읽게 된다(행.2:38; 8:16; 10:48; 19:5).그것을 어느 구절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한 것이 갈.3:27-29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自主者)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

세상에서 영생 약속은 예수를 통하여 죄 사함을 얻게되는 그 “축복”을 받는데 있는 것이다.그 후손인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에게 하신 그 약속을 나누게 된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롬.8:17) 하였다.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곳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그 축복을 기억하라. 그 후손의 백성은 바닷가의 모래와 밤 하늘의 별과 같이 온 세계에서 큰 그룹의 모임이 될 것이다.예수께서 그 축복을 제일 먼저 받게 됨으로 그를 “그 씨라”고 한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그 후손은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라”(시.22:30).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두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그 땅

-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예수,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가나안 땅과 온 세상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현재는 세상에서 그것을 받지 못하지만,예수께서 재림하는 오는 세상에서 받을 것이다.

(2) 그 후손

- 이것은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다.그를 통하여 인류의 원수인 죄가 극복됨으로,그 사죄의 축복이 온 세상에 넘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 후손과 연합하게 되고,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다.

18 하나님의 약속

이 두가지 맥락이 신약성서의 전장에 있으며,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배운 후에,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별로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에서 그 약속들이 우리와 맺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어찌하여 바울이 죽음에 봉착하여 “이스라엘의 소망으로서” 그의 소망을 정의하였는지를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행.28:20).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요.4:22)고 영적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께서 해설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들의 조상이 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그 구원의 약속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

- 1)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이다(행.8:12).

이것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에서 조금 다른 논제로 설명된 두가지 것들이다:-

- 1) 그 땅에 대한 약속
- 2) 그 후사에 대한 약속

그 나라와 예수에 관한 “것들”이 (- 복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서”(행. 8:5,12과 비교하라) 요약한 것에 주목하라. 많은 사람이 이것을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 그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 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라”는 낱말은 그와 그의 나라에 관한 여러가지 것들의 가르침을 요약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은 복음의 초기 전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석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논의하고 권유하였다”(행.19:8). 에베소에서는 그가 그들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다”(행.20:25). 그리고 그의 마지막 업적으로 로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권하였다”(행.28:23, 31). 이 모든 구절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의 기본 메시지로, 한마디로 말하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교 복음의 기본이 되는 그 약속을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 후손의 일부가 되어 그 약속의 기업을

하나님의 약속 19

받게 된다(갈.3:27-29)고 가르쳤다.그러나 단지 그 침례 하나만으로 그 약속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우리가 그 후손에게 하신 약속들을 얻으려면,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침례는 그 시작일 뿐,우리는 반드시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에 들어가 완주해야 하는 것이다.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자가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이 없이 자동적으로 구원 받게 된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롬.9: 7,8; 4:13,14).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음으로,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 아니냐?”(요.8:37,39). 그것은 하나님과 그 약속된 후손인 그리스도를 믿는 생활이라고(요.6:29 참고) 말하였다.

그 “후손”은 그 조상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만일 우리가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침례를 받을 뿐 아니라,또한 그가 가졌던바,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아브라함은“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또한 “그가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의 조상이 된”것이다(롬.4:11,12).“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줄 알지어다”(갈.3:7).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약.2:17).그 약속에 대한 믿음은 침례를 받음으로 확증하게 되는 것이다.그리하여 그 약속은 우리 개인의 것이 된다(갈.3:27-29).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가? 이것은 우리가 당신에게 계속하여 드리게 될 질문이며 권면이 될 것이다.

구약과 신약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 명확하게 되었을 것이다.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다른 부분들은 모세의 율법에 있는바,유대인들에 대한 것이었다.그것들은 유대인들이 그 법에 순종하면,이 세상에서 육신적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였다(신.28장).그 약속들에는 영생에 관한 것을 직접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가지 언약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다:-

- 1)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는,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수립될 때에 구속과 영생의 약속이 있다.이 약속은 또한 에덴동산에서 하였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하셨다.
- 2) 모세시대에 유대인들에게는,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을 순종하면,이 세상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게 될 약속이 있었다.

20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속죄와 그 나라에서 살게 될 영생을 약속하셨지만, 이것은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만 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까닭에 성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갈. 3:17; 롬. 15:8; 단. 9:27; 고후. 1:20). 그러므로 그의 피는 “새언약의 피라”고 부른다(마. 26:28). 예수께서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포도주 잔을 드는 의식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상기하며, 그의 피가 상징하는 것을 기억하라는(고전. 11:25) 것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눅. 22: 20).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예수와 그의 역사를 “기념하는 떡을” 떼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예수의 희생에서 오는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게 해놓았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수행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히. 7:22). 히브리서에서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히. 10:9)고 예수에 관하여 말하였다. 이것은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였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그 다른 언약이 폐하게 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모세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다. 그 구절은 예수께서 죽음심으로 이미 새언약이 확증되었고, 모세에게 주었던 그 옛언약이 폐지된 것을 시사하는 것이었다(히. 8:13).

그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이 먼저 맺어있었지만, 그가 죽기까지는 그 효력이 온전히 작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새언약” 이라고 하는 것이다. 모세로 말미암아 맺어진 “옛 언약의 목적”은 예수의 사역을 예시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밝히 비취고 있었다(갈. 3:19, 21).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진리를 확인하는 것이다(롬. 3:31). 바울은 기묘하게 그것을 이같이 요약하였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蒙學)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갈. 3:24). 그 목적을 위하여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보전되어 온 것이다. 그 학습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새 언약 -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

옛 언약 -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옛 언약이 폐지되고(골. 2:14-17),
새 언약이 유효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까닭에 십분의일 조세(租稅), 안식일 성수 등등, 옛 언약의 일부는 지금은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다. 학습 9.5를 보라. 그 새 언약은 육신적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렘. 31:31-32; 롬. 9:26-27; 겔. 16:62; 37:26), 그들과

맺어지게 될 것이다. 비록 어떤 유대인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침례를 받지 아니하지만, 주께서 새상에 재림하실 때에, 곧 그 새 언약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갈.3:27-29).

이것들을 바로 인식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교 전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였다고 회의론자들이 부당하게 비난한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확증되었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소망은 만질 수 없든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傳道)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느니라”(고후.1:17-20).

3.5 다윗과의 약속

아브라함과 기타의 여러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릴 때에 일찌기 받지 아니하였다. 그는 B.C.1000년 경 이스라엘의 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그의 부친의 양떼를 돌보며 이리 저리 그의 형들의 심부름을 하며 성장하였다(삼상.15-17장). 그의 믿음은 당시의 어느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수준에 도달해있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이웃 나라 블레셋에게 최대의 도전을 받고 있었다. 누구든지 그에게 이기는 자는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판이 자자했던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이라는 자에게 도전을 받고 있었다. 그 때에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단지 물땀 돌 다섯을 가지고 가서 그 하나를 사용하여 골리앗을 쳐죽이므로, 이스라엘에서 사울왕 보다 더 인기를 얻게 되었다. “질투는 음부 같이 잔혹하니라”(아.8:6). 사울왕은 질투에 사로잡혀, 그후 20년 동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므로 그는 꺾박을 피하여 이스라엘 남쪽 광야를 헤매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유대의 왕이 되었고, 그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깊이 체험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노경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려고 결심하였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건축하게 하라는 것이었다(삼하.7:4-13).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기로 하자:-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견고케 하리라.

22 하나님의 약속

나는 그 아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12-16절).

이전 학습에서 그 “후손은” 예수라고 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서술한(삼하.7:14) 그 구절은 또한 다윗의 자손인 것을 입증하고 있다:-

-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 자손이라”(계.22:16)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느니라”(롬.1:3).
- “이 사람(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행.13:23).
- 그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에 관하여 말하였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位)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눅.1:32-33).

그 후손이 예수라고 확증한 세부 사항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1) 그 후손

“네 몸에서 날 네 후손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몸의 소생을 네 위(位)에 돌지라”(삼하.7:12-14; 시.132:10-11). 그 후손인 예수는 실제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시이다. 이것은 신약성서에 묘사된대로 동정녀에게서 출생해야만 그 아버지의 뜻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예수의 모친은 다윗의 자손인 마리아였지만(눅.1:32), 그에게는 인간적 부친이 없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그녀의 자궁에서 작용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 천사는 그것을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1:35)고 하였다.

2) 그 집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는”(삼하.7:13) 것은 예수께서 하

하나님의 약속 23

나님의 성전,- 실제의 성전과 영적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에는 그 천년왕국 때에 이스라엘에 세워질 성전을 묘사하고 있다. “집”이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을 말하며, 그가 겸손한 자의 마음에 들어와서 살 것을 말하고 있다(사.66:1-2). 그러므로 예수는 참된 신자들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위한 영적 성전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로서(벧전.2:4-8), 그리고 신자들은 그 성전 구조의 돌들로서(벧전.2:5) 묘사되었다.

3) 그 위(位)

“나는 그 나라(그리스도의 나라) 보위(寶位)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보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삼하.7:13, 16).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다윗의 나라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습 5.3을 참고하라. 이 약속의 성취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보위(寶位)에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시행될 것이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이 땅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4) 그 나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삼하.7:16) 것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수립을 목격할 것을 사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에게 하신 직접적 약속으로, 그가 그의 눈으로 친히 그 모든 것을 보기 위해 그리스도 재림에서 부활할 것이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다. 다윗은 그것들에 대한 기쁨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삼하.23:5).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된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들로 기뻐하며 그것들로 우리 소망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 교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소위 그리스도교계는 허황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으니, 그것은 참으로 비극이다:-

- 만일 예수가 하늘에서 육체적으로 형체를 가지고 “선재(先在)했었다면”, 즉 예수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의 인격체의 사람으로 하늘에 존재했었다면, 그는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없으며, 그 약속은 거짓말이 되고, 하나의 터무니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말 것이다.

-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을 것이라면, 예수께서 이스라엘 다윗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을 것이며, 또한 그 다윗의 위에서 다스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지상에 이루

24 하나님의 약속

어지며,그 나라의 재건도 지상에 이루어질 것이다.

솔로몬에게서 성취된 것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 부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를 성취하였다.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고(왕상.5-8장),그 나라를 융성하게 하였다.그를 둘러싼 모든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경의를 표하여 사절을 보내었고(왕상.10장),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적 축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통치는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하는 예표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은 솔로몬 때에 솔로몬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그것은 다음 것들로 인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 신약성서 여러 곳에서 그 “후손”은 솔로몬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였다.
-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들과 연관되어 있다(대상.17:27 = 창.22:17-18).
- 그 “후손”의 나라는 영원히 존속하는 반면에,솔로몬의 나라는 패망하였다.
- 다윗은 그 약속들이 영생에 관한 것이며,그것들은 그의 직계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였다.“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나,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삼하.23:5).
- 다윗의 그 후손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사.9:6-7; 22:22; 렘.33:5-6,15; 요.7:42).솔로몬은 그의 생의 후반에 이스라엘의 소망 밖에 있는 여인들과 혼인하고,그녀들의 신을 섬김으로 그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주 돌아섰던 것이다(왕상.11:1-13; 느.13:26).

변론 9: 하늘과 땅의 멸망(벧후.3:6-12)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이 지구를 파괴해 버린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하는 그의 목적은(학습 5를 보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며, 학습 3.3에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일은 하시지 않으실 것을 확증하였다. 그러므로 상기한 하늘과 땅을 멸한다는 것은 비유적 표현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한 그 문장은 “노아의 때의 심판과 장차 주의 때에 일어날 것을” 유사하게 가리키고 있다. “그 때에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바 되었느니라”(벧후.3:6-7).

베드로는 노아의 때에 심판으로 사용한 것은 물이며 장차 주께서 채립하셔서 사용할 것은 불이라고 대조하여 가리켰다. “노아의 때의 그 하늘과 땅은” 실제로 멸망하지 아니하였고, “죄 있는 육체가 멸망하였었다”(창.7:21; 6:5,12와 비교하라). 그러므로 “그 하늘과 땅은” 당시 인간이 형성하고 있던 제도 또는 문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 구절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늘이 멸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 - 그것들은 실제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이며(시.123:1), 그곳에는 죄가 없으며(합.1:13; 시.65:4,5),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곳이다(시.19:1). 그 하늘을 비유적 표현으로 취급한다면, 그 “땅”도 그렇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음 구절들도 성서에서 그 하늘과 땅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이 땅위에 수립되어 있는 인간 제도 또는 문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내가 땅을 본즉 혼동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니, ... 이는 야웨의 말씀에 이 온 땅(이스라엘)이 황무할 것이나, ...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렘.4:23-28). 이것은 이스라엘 땅과 사람들에게 있을 심판에 관한 예언이다. 그들이 문자 그대로의 “하늘과 땅을” 위하여 슬퍼하지 아니하였다.

- 모세가 일찌기 모든 이스라엘에게 선언한 바가 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신.32:1). 그것은 두 부류의 사람, **그 족속의 장로들(통치 계급)**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중(백성)**을(신.31:28-30) 말한 것이다. 그 장로들은 하늘에 해당하고 그 땅은 일반 백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 이사야도 그 유사한 문체로 그의 예언을 말하였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야웨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사.1:2,10). 여기서 그 하늘은 통치자들이고 그 땅은 백성을 대비하여 말하고 있다.

26 하나님의 약속

- “하나님이 그 백성(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시.50:4). 이것도 그 뜻이 마찬가지이다.

-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학. 2:7,21).

- “야웨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면, 야웨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이는 야웨께서... 에돔 땅에서 큰 살륙을 행하심이라”(사.34:5,6). 여기의 하늘은 에돔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 전절의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라”(사.34:4)고 한 것은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다.

이사야서 13장에서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고 한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한 것이다. 그 바벨론에 대한 일련의 진술에서 우리는 “나 만군의 야웨가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그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사.13:13-14)라고 말한 것을 읽게 된다. 그 하늘과 땅이 떠나간다는 것은 그 백성이 떠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히브리서에 “세상 끝은” 1세기에 일어났던 것으로, A.D. 70년 유대 세상이 끝난 것을 가리킨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면, 신약성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 재림에 있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새 사회를 말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될 것이다.

그 벤후.3장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보면, 현재의 ‘하늘과 땅이’ 끝날 것을 묘사하고 계속하여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벤후.3:13)라고 하였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사.65:17)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사.65장의 나머지 부분은 그 새로운 제도가 이 땅에 수립되어 완전한 상태가 될 세상을 묘사하고 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하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라”(사.65:18-25).

이 축복은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이다. -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현재의 참혹한 이 세상이 바뀌어진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그 때에는 모든 사람의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변론 10: British Israelism 주장

이 사상은 H.W.Armstrong씨의 ‘Plain Truth’라는 종교 단체가 주장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British** (영국 족속)과 미국 사람들에게 성취되었다고 한다. 영국 사람들은 에브라임 족속이며 미국사람들은 므낫세 족속이라는 것이다. 이 ‘British Israelite’ 운동 회원들은 영국의 왕들과 여왕이 다윗왕이 시작한 그 유대 족속의 후손들이라고 한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를 거부하므로 대신 영국 백성이 선택되었다고 결론짓는 것이다.

학습 3의 논증에 의하면, 이것은 성서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 것들은 그 부당성을 논한 몇가지 실례이다:-

모든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 있다(롬.3:23).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어떤 국가적 배경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고 영적 이스라엘의 부분이 되지 아니하는 한 구원 받을 수 없다(갈.3:27-29 참고하라).우리는 세상에 나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라는 명령을 받았다(막.16:15-16).이것으로 그 새 이스라엘은 영국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 사람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 사람의 근원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그들은 세계 여러 곳에서부터 모인 혼합 족속이다.오직 그 나라들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 자리에 영국을 대치하였다는 것은 롬.11:1,2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다.“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베냐민 지파라.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였다(대하.9:8).그 나라는 불순종으로 전복되었지만,곧 재건될 것이다(겔.21:25-27).예수께서 다윗의 위에서 통치하실 때에(눅.1:32)그 나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미.4:8).

현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그들의 고토에 돌아오고 있으며,또한 모두 돌아오게 될 것이다.“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의 모든 다스리게 하리니”(겔.37:21,22).이미 그들의 고국에 돌아옴으로 성취되고 있다. 그 완전한 성취는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인바,현재 이스라엘이 그 고국에 돌아오고 있는 것은 곧 그때가 임박한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28 하나님의 약속

학습 3: 학습 문제와 해답

1. 하나님의 어느 약속이 죄와 의의 계속적 갈등을 예언한 것인가?
 - a) 노아에게 하신 약속
 - b) 에덴 동산에서 하신 약속
 - c) 다윗에게 하신 약속
 - d)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2. 아래의 어느 것이 에덴에서의 약속을 바로 말하는 것인가?
 - a) 그 뱀의 후손은 루씨퍼이다
 - b) 그리스도와 의인은 그 여자의 후손이다
 - c) 뱀의 후손은 그리스도에 의해 일시적 상처를 받았다
 - d)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머리의 상함을 받았다
3.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디서 살게 될 것인가?
 - a) 하늘에서
 - b) 예루살렘 도성에서
 - c) 땅에서
 - d) 일부는 하늘에서 일부는 땅에서
4. 아래의 어느 것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인가?
 - a) 그의 위대한 후손이 영원히 다스릴 것
 - b) 그의 후손이 하늘에서 왕이 될 것
 - c) 그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
 - d) 그의 후손, 예수가 땅에서 태어나기 전 하늘에 있었다는 것
5.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가?

6. 이 땅이 장차 멸망할 것인가?

7. 상기한 질문 6에 대답으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라.

8. 창.3:15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신 약속을 설명하라.

